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경제적 성과와 향후 과제

곽성일 경제안보전략실장 (sikwak@kiep.go.kr, Tel: 044-414-1050)

김제국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egook@kiep.go.kr, Tel: 044-414-1039)

차례

1. 한국-베트남 수교 30년간의 경제협력 발자취
2.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투자 현황과 특징
3. 한국-베트남 공급망 연계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4.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방안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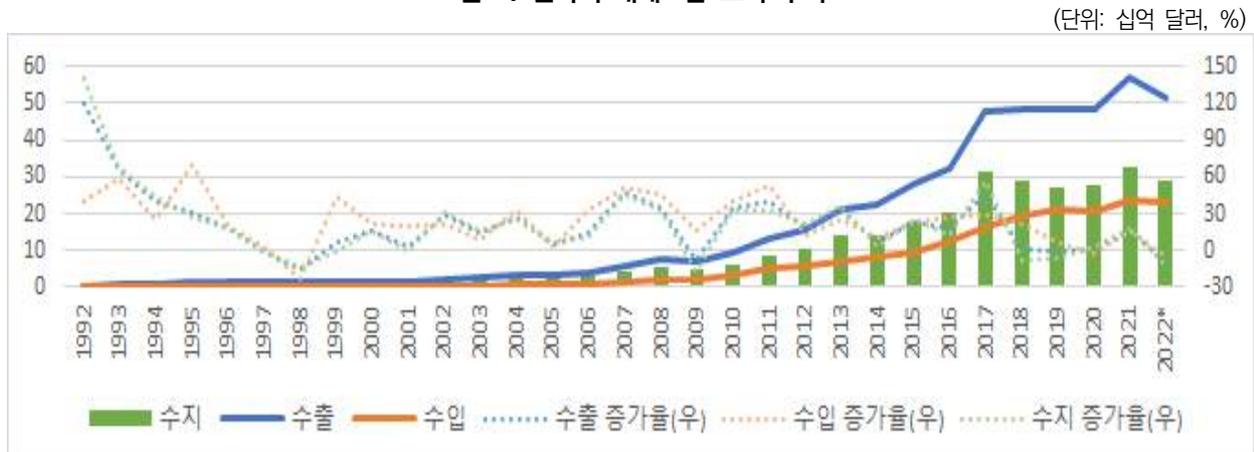
- ▶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상생의 발전 토대를 형성해왔으며, 양국 관계가 성숙한 만큼 협력의 폭과 깊이를 한 차원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베트남의 1992년 12월 22일 공식 외교관계 수립 당시 기준 약 5억 달러였던 교역액은 지난 30년 사이 160여 배 증가하며 2021년에 807억 달러를 돌파함.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한반도 정세 악화 등의 글로벌 도전과제가 부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양국간 경제협력은 1992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 ▶ 2021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 파트너이자 1위 투자국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 상대국(누적 기준)이자 아세안 지역 내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함.
 - 양국간 교역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노동집약적인 저위기술 품목에서 고부가가치의 중고위 첨단기술 품목으로 바뀜.
 -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도 201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해서 저위기술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급 및 첨단 기술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은 증가함.
 - 공급망 측면에서 최근 5년 사이 한국은 베트남에 의존적인 품목 수가 증가한 반면, 베트남은 품목 수 면에서 한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 한국과 베트남은 양국 관계의 다가올 미래 30년에 대한 로드맵과 함께 2023년 교역액 1천억 달러, 2030년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은 신흥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협력 로드맵 수립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기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구 고령화, 인플레이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과제를 고려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교역 확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측면에서 양국은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재·부품 산업의 R&D 및 기술 이전, 베트남의 아세안 지역 가치사슬 참여 지원 등 양국간 협력 고도화가 필요함.
 - 한편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및 기술 이전 관련 제도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만 최근 지체되고 있는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 한국-베트남 수교 30년간의 경제협력 발자취

■ 한국의 대베트남 교역은 1992년 수교 이후 베트남의 WTO 가입, 양국 FTA 체결 등을 통해 비록 부침은 있었으나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교역액 800억 달러를 초과함.

-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은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2007년, 한-베트남 FTA가 발효된 2015년을 전후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2007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58억 달러, 수입은 14억 달러를 초과하며 전년대비 각각 46.7%, 50.5%의 증가율을 기록함.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입 증가율은 -8.4%, 16.3%를 기록했으나, 2010년에 수출이 35.0% 증가하며 2011년 1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음.
 - 한-베트남 FTA가 발효된 2015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입은 전년대비 각각 24.2%, 22.7% 증가했으며,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2007년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19.4%, 25.4%를 기록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양국 교역이 정체되었으나, 2021년 회복하며 수출 567억 달러, 수입 239억 달러로 교역액 800억 달러를 초과함.
 - 교역액 800억 달러는 중국(2005년 1,006억 달러), 미국과 일본(2007년 각각 829억 달러, 826억 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달성한 기록임.
- 한편 2021년 한국의 대세계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전년대비 25.7%, 31.5%인 데 반해,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입은 각각 전년대비 16.9%, 16.5%에 증가에 그쳐, 양국간 교역 증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 마련이 필요함.
 - 2022년 10월까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입은 각각 13.0%, 16.5% 증가하여 516억 달러, 22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1. 한국의 대베트남 교역 추이



주: 2022년의 경우 1~10월 누적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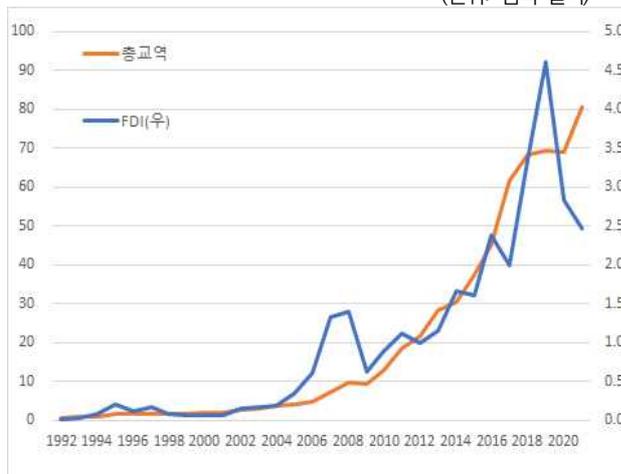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2. 11. 26)을 활용해 저자 작성.

-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수교 이후 2006년까지 누적 23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2007년 처음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13억 달러가 투자된 이후 2019년까지 증가세를 보임.
 -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2007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13억 달러를 넘으며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8년에도 13억 9,0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짐.
 - 이후에도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 누적 100억 달러를 초과했고, 2019년에는 단일연도 기준 최대 투자규모인 4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누적 투자 300억 달러를 달성함.
 -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양국 총교역과 동행하는 추세를 보이며(상관계수 0.916), 산업별 투자와 수출 부가가치 기준 총교역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상관계수 0.854)를 보임.
 -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체된 양국의 교역이 2021년 빠르게 회복된 것에 비해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미중 패권 경쟁, 고금리, 공급망 교란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으로 인해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임.

그림 2. 한국의 대베트남 FDI와 양국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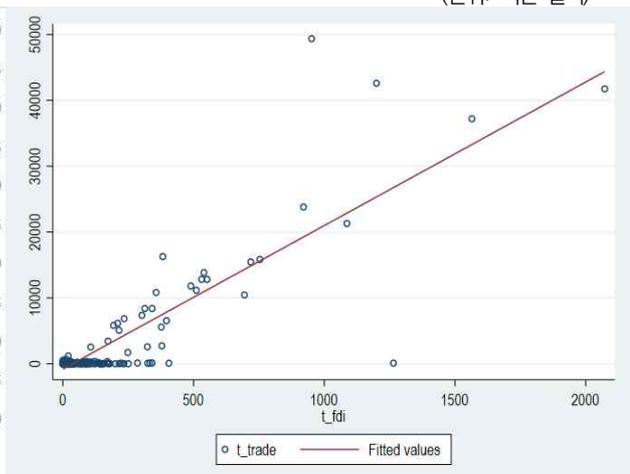
a. FDI와 총교역 추이

(단위: 십억 달러)



b. FDI와 수출 부가가치 기준 총교역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IMF · DOTS(검색일: 2022. 11. 26); ADB-MRIO를 활용해 저자 작성.

- 한국은 베트남의 교통 부문 및 교육, 보건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공적원조를 통해 2012~20년간 베트남의 3대 ODA 공여국 자리에 위치함.
 - 2012~20년간 한국의 대베트남 ODA는 16억 3,837만 달러를 기록하며 해당 기간 일본, 독일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자 ODA를 기록함.
 - 위 금액은 OECD DAC 총 ODA에서 8.1% 비중이며, 대베트남 전체 ODA 유입의 4.9% 비중임.

표 1. 베트남의 ODA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ODA	4,229	4,540	4,830	4,277	3,986	3,578	2,833	2,435	2,570
DAC 계	2,660	2,747	2,934	2,582	2,538	2,302	1,502	1,474	1,389
일본	1,604	1,624	1,943	1,638	1,637	1,482	707	670	620
독일	108	150	173	175	236	192	221	199	211
한국	219	246	181	228	188	182	148	109	137
프랑스	192	230	213	175	140	144	120	236	146
미국	107	131	114	96	121	131	123	102	137
다자 계	1,560	1,786	1,888	1,676	1,425	1,238	1,264	938	1,153
ADB	310	371	430	468	432	242	366	185	261
UN	18	23	22	58	41	36	30	25	28
WB	1,136	1,223	1,303	966	807	783	740	640	675

주: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검색일: 2022. 11. 27)을 활용해 저자 작성.

- 한국의 대베트남 ODA는 경제 인프라 서비스 중 교통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그 외 교육, 보건, 위생·수도공급 등 사회 인프라 서비스의 비중이 높음.

○ 2020년의 경우 인도주의 지원 부문에 1,000만 달러 이상이 지원되며 높은 비중을 기록함.

표 2. 한국의 부문별 대베트남 ODA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219	246	181	228	188	182	148	109	137
사회 인프라 서비스	26.9	24.5	31.0	31.1	32.5	37.5	36.3	45.3	48.4
교육	5.0	6.1	11.0	8.7	12.0	8.0	8.0	13.5	14.2
보건	16.3	8.4	7.8	3.9	4.2	9.8	6.4	3.9	12.6
위생·수도공급	3.7	7.4	8.4	14.7	12.2	16.0	12.2	10.2	10.8
정부·시민사회	1.3	1.8	2.8	2.9	3.2	2.5	7.7	14.9	9.0
경제 인프라 서비스	53.5	62.8	57.7	54.1	54.1	48.5	44.2	40.5	33.3
교통	49.5	61.8	54.0	52.1	52.2	46.4	41.8	38.0	31.3
교통 이외 인프라	4.0	1.0	3.7	2.0	1.9	2.1	2.4	2.5	2.0
생산부문	1.5	2.9	6.3	6.2	6.3	6.4	5.1	6.4	5.8
다부문	18.1	9.8	4.6	8.5	6.5	6.5	8.6	5.4	4.0
인도주의 지원	0.0	0.0	0.2	0.1	0.5	0.8	5.8	1.1	7.8

주: Creditor Reporting System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 disbursement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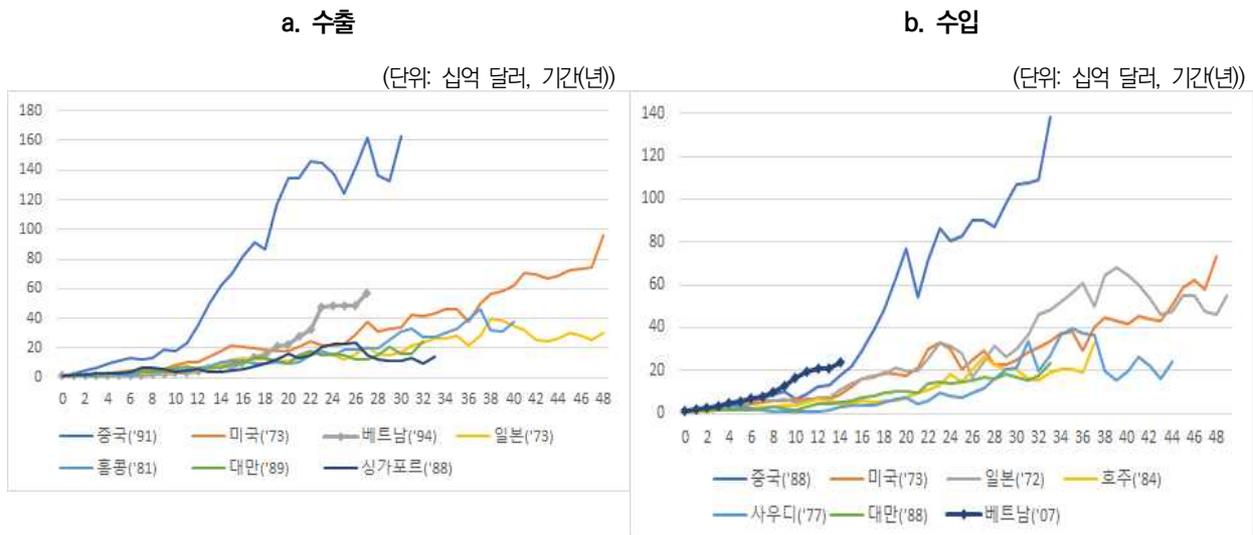
자료: OECD.stat(검색일: 2022. 11. 27)을 활용해 저자 작성.

2.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투자 현황과 특징

가. 교역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입이 10억 달러를 달성한 후 200억 달러 달성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된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국가 대비 수입 증가세는 가장 빨랐고, 수출 증가세는 중국 다음으로 빨랐음(그림 3 참고).
- 양국 수교 이후 2021년까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입은 각각 18.3%, 23.1%의 연평균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은 130배, 수입은 418배 증가했으며, 총교역은 16.6%의 연평균증가율을 기록하며 163배 증가함.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1994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초과한 후 2021년까지 16.0%의 연평균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1년 10억 달러 초과 후 18.5%의 연평균증가율을 기록한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 수출 10억 달러 초과 후 200억 달러 도달까지 걸린 시간은 19년이며, 이는 중국, 미국 다음으로 빠름.
-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은 2007년 1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2021년까지 24.5%의 연평균증가율을 유지한 결과, 베트남은 한국의 7대 수입국 중 가장 높은 연평균증가율을 기록함(그림 3(b) 참고).
 - 수입 10억 달러 초과 후 200억 달러 도달까지 걸린 시간은 12년으로 7대 수입국 중 가장 빠름.

그림 3. 한국의 7대 수출입국과의 교역 추이: 10억 달러 달성 이후 기준



주: 국가 뒤의 숫자는 한국과 해당국의 수출액, 수입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한 해를 나타내며, 수평축의 숫자는 이를 기준으로 흐른 시간(년)을 뜻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2. 11. 26)을 활용해 저자 작성.

표 3.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 구조(최종 사용별 기준)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교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간재	69.2	72.2	73.2	74.5	74.9	75.5	77.8	72.2	77.2	78.9	83.1
소비재	4.5	4.4	4.2	4.0	4.5	4.0	3.9	3.1	3.4	3.5	3.4
자본재	12.2	10.9	12.2	15.2	14.8	17.1	13.0	19.3	13.8	11.1	9.4
혼합사용	5.7	4.4	3.3	2.7	3.4	2.3	2.1	1.2	1.6	1.9	1.8
PC	0.3	0.4	1.3	1.2	1.6	0.6	0.3	0.2	0.1	0.1	0.1
승용차	3.0	2.6	1.0	0.8	1.1	1.2	1.3	0.7	1.1	1.4	1.2
전화기	0.8	0.5	0.1	0.0	0.1	0.0	0.0	0.0	0.0	0.0	0.1
귀중품	0.5	0.1	0.1	0.1	0.1	0.0	0.0	0.1	0.1	0.1	0.1
의약품	1.1	0.9	0.8	0.6	0.5	0.4	0.4	0.3	0.2	0.2	0.2
그 외	8.4	8.1	7.1	3.6	2.5	1.1	3.3	4.1	4.0	4.5	2.4

자료: OECD.stat.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검색일: 2022. 11. 27)를 활용해 저자 작성.

표 4. 주요 품목별 한국의 총수출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최종 사용별 기준)

(단위: %)

구분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식·음료 및 담배	중간재	10.4	14.4	18.0	12.0	15.0	14.7	13.4
	자본재	7.2	16.0	17.8	20.1	20.7	18.8	12.8
직물·의류·가죽 및 관련 제품	중간재	12.5	21.4	24.0	25.7	26.5	26.5	24.5
	소비재	13.8	23.0	26.0	27.6	28.6	29.2	31.0
의약품	혼합: 의약품	23.0	17.3	18.1	15.9	14.2	14.9	12.5
금속 제품	자본재	2.1	8.8	8.3	10.2	8.4	11.0	11.5
컴퓨터·전자 및 광학 제품	중간재	1.2	9.4	12.9	12.6	12.0	17.3	18.2
	자본재	0.2	2.0	4.0	13.0	13.4	12.8	11.9
전기 장비	중간재	1.4	8.6	12.6	22.2	21.5	11.6	11.9
기타 기계·장비	자본재	3.0	8.2	7.7	14.5	6.8	6.1	5.6

자료: OECD.stat.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검색일: 2022. 11. 27)를 활용해 저자 작성.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 증가는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이 증가한 덕분이며, 직물·의류·가죽 및 관련 제품의 소비재, 금속 제품의 자본재 등도 수출 증가에 기여함(표 3과 표 4 참고).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는 2010~20년간 19.7%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이며 2020년 수출액 403억 달러를 기록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69.2%에서 83.1%까지 증가함.
 - 동 기간 소비재, 자본재도 연평균증가율 14% 이상을 기록했으나, 중간재 수출 증가에 비해 속도가 더뎠다.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 주요 품목별로 볼 때, 식·음료·담배의 중간재, 금속 제품의 자본재, 전기 장비의 중간재, 직물·의류·가죽 및 관련 제품의 중간재·소비재·자본재, 컴퓨터·전자 및 광학 제품의 중간재·자본재, 의약품 중 혼합사용 용도의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표 4 참고).
 - 한국의 컴퓨터·전자 및 광학 제품의 중간재 수출에서 차지하는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2%에서 2020년 18.2%까지 증가함.

■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 증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 수입 증가 외에도 소비재, 자본재 등의 수입 증가가 고르게 기여함.

-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 또한 중간재의 비중이 크나 소비재, 자본재의 2010~20년간 연평균증가율(각각 19.1%, 31.6%)보다 낮아(17.3%)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61.0%에서 48.7%로 감소함.
 - 동 기간 대베트남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소비재 비중은 35.3%에서 32.7%로 다소 감소했으며, 자본재의 경우 3.7%에서 9.4%까지 증가함(표 5 참고).
- 주요 품목별로 볼 때, 식물·의류·가죽 및 관련 제품, 나무·종이 제품, 전기 장비 등의 수입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편이며, 식물·의류·가죽 및 관련 제품의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 컴퓨터·전자 및 광학 제품의 소비재와 혼합사용 용도(전화기) 수입, 금속 제품의 소비재 수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
 - 컴퓨터·전자 및 광학 제품 수입의 경우 소비재, 혼합사용 용도(전화기) 수입에서 차지하는 베트남의 비중이 2010년 0.0%에서 2020년 각각 17.9%, 26.5%까지 증가함(표 6 참고).

표 5.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 구조(최종 사용별 기준)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교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간재	61.0	58.0	54.0	49.0	39.3	44.7	45.5	49.1	48.0	51.5	48.7
소비재	35.3	38.0	41.3	43.9	51.3	43.6	39.3	36.2	35.5	33.7	32.7
자본재	3.7	4.0	4.4	6.7	8.1	10.4	11.5	7.9	9.9	7.8	9.4
혼합사용	0.1	0.1	0.2	0.3	1.3	1.2	3.7	6.8	6.6	7.0	9.3
PC	0.0	0.0	0.1	0.2	0.8	0.7	1.0	1.6	1.4	1.8	4.0
승용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화기	0.0	0.0	0.1	0.1	0.4	0.5	2.7	5.2	5.1	5.2	5.3
귀중품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의약품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그 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자료: OECD.stat.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검색일: 2022. 11. 27)를 활용해 저자 작성.

표 6. 주요 품목별 한국의 총수입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최종 사용별 기준)

(단위: %)

구분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식물·의류·가죽 및 관련 제품	중간재	8.9	9.9	11.6	12.8	14.0	15.4	16.4
	소비재	8.4	21.9	23.5	25.7	27.5	27.4	25.8
	자본재	0.5	7.2	17.3	13.5	14.7	15.5	10.9
나무·종이 제품	중간재	2.0	6.0	7.5	8.2	11.0	10.8	11.4
금속 제품	소비재	1.9	5.7	6.3	8.9	9.1	6.5	11.0
컴퓨터·전자 및 광학 제품	소비재	0.0	4.9	16.1	19.0	15.4	14.7	17.9
	혼합: 전화기	0.0	1.6	11.5	16.9	23.3	28.8	26.5
전기 장비	중간재	0.7	2.6	3.3	4.3	4.7	5.2	5.9
	소비재	0.4	4.6	3.8	4.1	3.2	4.3	5.7
	자본재	0.6	5.0	4.1	3.4	5.4	5.2	5.3
운송 장비	소비재	0.3	2.6	3.0	2.8	3.6	5.1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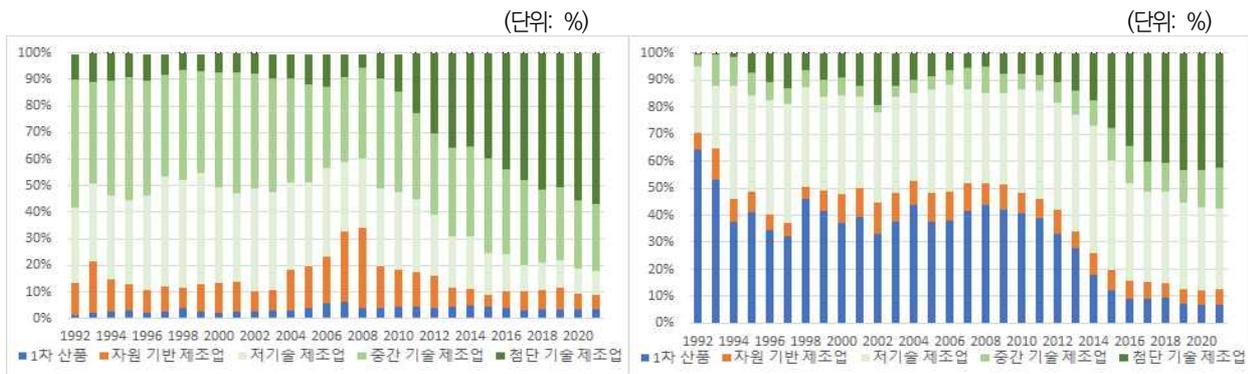
자료: OECD.stat.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검색일: 2022. 11. 27)를 활용해 저자 작성.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저기술 제조업, 중간기술 제조업 위주에서 첨단기술 제조업 중심으로, 수입은 1차 상품, 저기술 제조업 위주에서 첨단기술 제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교역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짐.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수교 당시 직물, 실 등 저기술 제조업과 비료, 인조직물 등 중간기술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2010년 이후 전기·전자 산업 등 첨단기술 제조업 수출비중이 증가함(그림 4(a) 참고).
 -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저기술 제조업의 비중과 중간기술 제조업의 비중은 1992년 28.7%, 48.1%에서 2021년 8.8%, 25.1%까지 하락했으나, 첨단기술 제조업의 경우 같은 기간 9.2%에서 56.9%까지 증가함.
 - 석유 및 역청 광물 제품, 타이어·튜브 등 자원 기반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1992년 12.2%에서 2008년 30.5%까지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5.4%로 하락함.
-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에서 1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했지만, 첨단기술 제조업의 수입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그 외 제품의 비중은 유지되는 추이임(그림 4(b) 참고).
 - 한국의 대베트남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1차 상품의 비중은 수교 초기 50%를 넘었으나, 다른 품목의 수입 증가 및 1차 상품 수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석탄, 원유 등의 수입 감소로 최근 7% 전후까지 감소함.
 - 반면 수교 초기 1% 미만을 기록한 첨단기술 제조업의 수입 비중은 컴퓨터 및 그 부품·부분품, 통신 기기 및 그 부품·부분품 수입 증가에 따라 2017년 이후 40% 비중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그 외 중간기술 제조업의 비중이 1992~2021년간 약 3.6배 증가한 것 외에 자원 기반 제조업, 저기술 제조업 및 그 외 품목의 비중은 같은 기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그림 4. 기술분류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입 비중 추이

a. 수출

b.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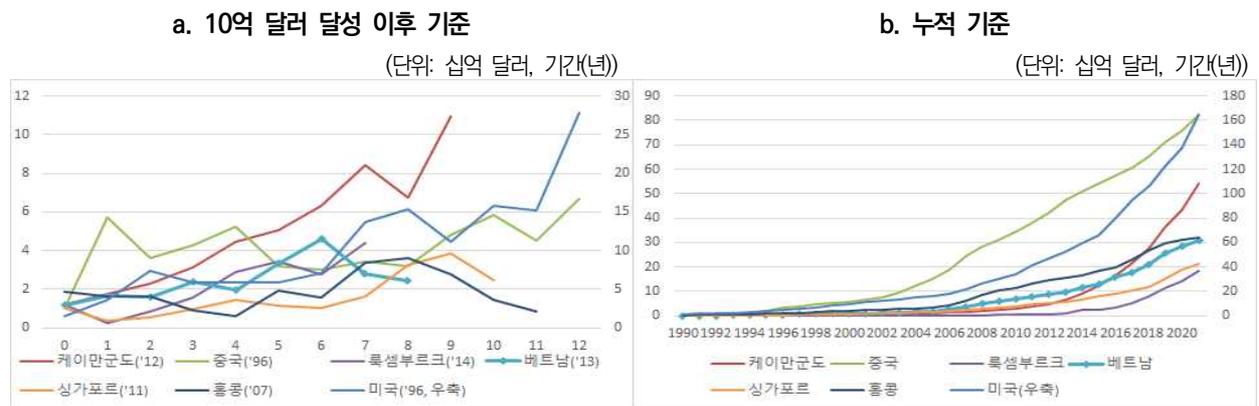
자료: WITS(검색일: 2022. 11. 29)를 활용해 저자 작성.

나. 투자

-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누적 투자 10억 달러를 초과한 이후 30억 달러 달성까지의 도달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네 번째로 빠른 증가세를 기록함(그림 5(a) 참고).
- 양국 수교 이후 2021년까지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18.7%의 연평균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24억 7,000만 달러의 투자를 집행해 총누적 300억 달러를 돌파함(그림 5(b) 참고).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6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짐.

-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2013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초과한 후 2021년까지 9.9%의 연평균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10억 달러 초과 후 케이맨군도, 룩셈부르크, 미국의 2021년까지 연평균증가율(각각 27.9%, 20.4%, 12.1%)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 o 대베트남 투자의 10억 달러 초과 후 30억 달러 도달까지 걸린 기간은 5년이며, 이는 미국, 중국, 케이맨군도 다음으로 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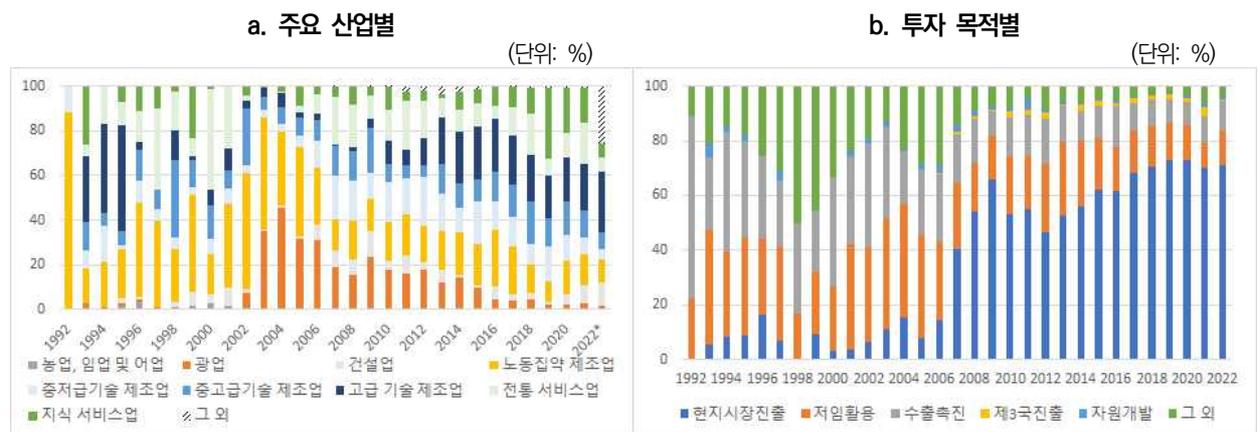
그림 5. 한국의 대7대 투자국 직접투자 추이



주: 국가 뒤의 숫자는 한국의 해당국 직접투자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한 해를 나타내며, 수평축의 숫자는 이를 기준으로 흐른 시간(년)을 뜻함.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2. 12. 5)를 활용해 저자 작성.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2. 12. 5)를 활용해 저자 작성.

그림 6.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 추이



주: 투자 금액 기준임.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2. 12. 5)를 활용해 저자 작성.

주: 신규법인 수 기준임.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2. 12. 5)를 활용해 저자 작성.

■ 한국의 산업별 대베트남 직접투자(투자금액 기준)는 과거 노동집약 제조업 중심이었으나, 최근 고급기술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함(그림 6(a) 참고).

- 1992~2006년간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액은 총 23억 달러를 넘는 수준에 그쳤으며, 절반 이상이 광업과 의류, 신발 제조업 등을 포함하는 노동집약 제조업에 쏠렸음(각각 19.1%, 33.9%).

-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2007년 이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가 본격화되었음.
 - 광업, 노동집약 제조업의 투자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1차 금속 제조업,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포함한 중저급기술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을 포함한 중고급기술 제조업의 투자 비중도 증가함(2007년 기준 각각 19.6%, 13.2%).
- 2010년대부터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을 포함한 고급기술 제조업으로의 투자 비중이 증가해 전체 투자의 20% 전후 비중을 차지함.
- 서비스업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을 포함한 전통 서비스업으로의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9년 전체 투자의 30% 이상이 투자된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한 지식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함.

■ 한국의 투자 목적별 대베트남 직접투자(신규 법인수 기준)는 수교 초기 저임 활용 목적과 수출 촉진 목적의 비중이 높았으나, 2008년 이후에는 현지시장 진출 목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그림 6(b) 참고).

- 수교 초기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저임 활용 목적과 수출 촉진 목적의 투자가 각각 전체에서 30% 전후의 비중으로 주를 차지했으나, 최근 10%대 비중으로 감소함.
- 반면 현지시장 진출 목적 투자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했는데, 2008년 이후의 경우 전체 투자에서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함.
- 베트남의 소득 증가에 따른 내수 확장과 베트남 진출 다국적 기업의 현지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이해됨.

3. 한국-베트남 공급망 연계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베트남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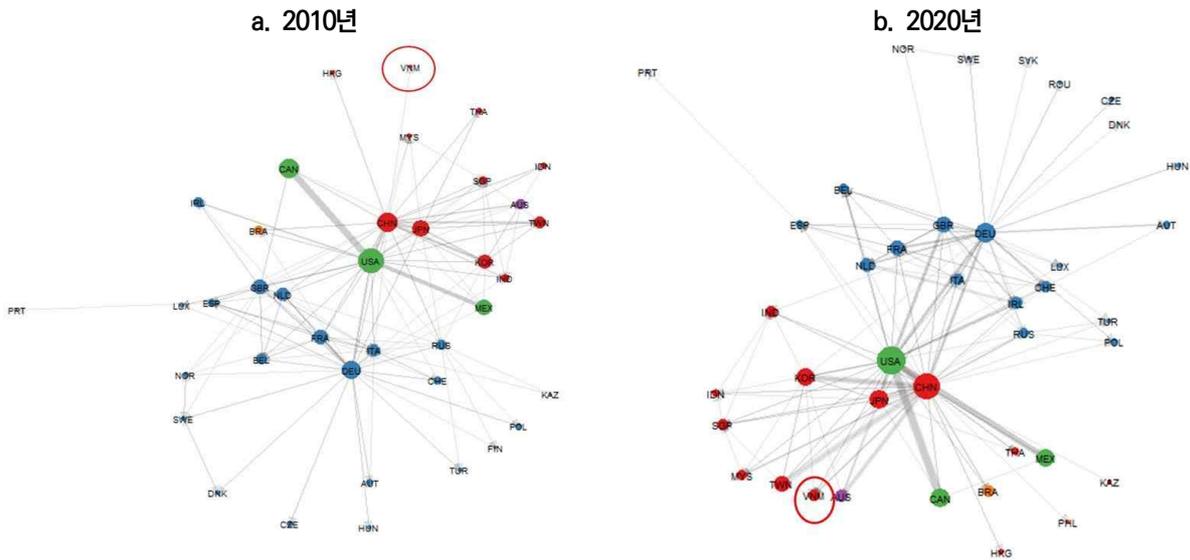
- 한국과 베트남 간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입 비중 확대는 양국간 공급망 연계가 강화되었음을 시사함.
 - 2000년 베트남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는 미진했지만, 2010년이 되면 중국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GSC)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을 통해 GSC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그림 7 참고).
 - 베트남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증가는 외국계 투자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덕분인데, 특히 베트남 내 1위 투자국인 한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음.
 - 한편 미중 패권 경쟁과 중국의 인건비 상승, 아세안 내수시장 성장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려는 중국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중국에서 아세안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수가 늘고 아세안 지역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함.
 - FDImarket 데이터에 따르면 탈중국기업의 대아세안 투자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남.
 - 싱가포르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고, 베트남은 다른 아세안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

으로 FDI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임.

※ 아세안 이전 중국기업 중 베트남향 비중(%): '16(7.2)→'17(8.7)→'18(11.5)→'19(22.5)→'20(5.1)

※ 아세안 이전 중국기업 중 싱가포르향 비중(%): '16(22.9)→'17(27.5)→'18(29.2)→'19(28.2)→'20(30.8)

그림 7. 국가간 중간재 이동 네트워크(2010→2020)



주: 붉은 점은 아시아 대륙 국가, 파란 점은 유럽, 녹색 점은 북미지역, 보라색 점은 대양주, 주황색 점은 남미지역을 나타내며, VNM은 베트남, IDN(인도네시아), SGP(싱가포르), MY S(말레이시아), THA(태국), TWN(대만), JPN(일본), KOR(한국), CHN(중국)을 나타냄.
자료: ADB-MRIO 자료 활용 저자 작성.

주: 붉은 점은 아시아 대륙 국가, 파란 점은 유럽, 녹색 점은 북미지역, 보라색 점은 대양주, 주황색 점은 남미지역을 나타내며, VNM은 베트남, IDN(인도네시아), SGP(싱가포르), MY S(말레이시아), THA(태국), TWN(대만), JPN(일본), KOR(한국), CHN(중국)을 나타냄.
자료: ADB-MRIO 자료 활용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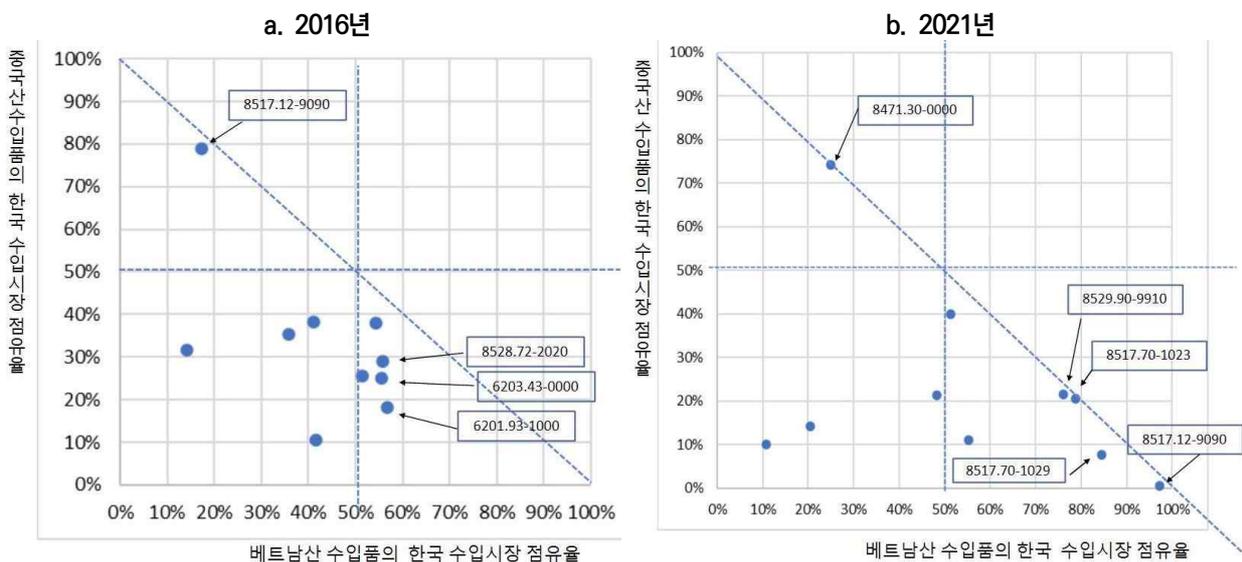
나. 한국-베트남 공급망 연계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HS 10단위 기준으로 2016년 베트남산 수입품 가운데 한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초과하는 품목 수는 192개였으나, 2021년에는 278개로 연평균 7.7%씩 증가함.

- 한국의 대베트남 공급망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해 HS 10단위 기준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품 중 한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 50%를 초과하는 품목 수를 2016년 자료와 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및 비교함.
- 2016년 기준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품 중 한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50% 초과인 품목 수는 192개였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 중 한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50% 초과인 품목 수는 3,155개였음.
 - 2016년 한국은 HS 10단위 기준으로 세계에서 1만 1,038개 품목을 수입하였고, 그중 베트남으로부터 3,925개 품목, 중국에서 9,092개 품목을 수입했음.
- 2021년 기준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품 중 한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초과하는 품목 수는 278개였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 가운데 한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초과하는 품목 수는 3,625개였음.
 - 2021년 HS 10단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1만 1,215개 품목을 수입하였고, 그중 베트남으로부터 4,837개 품목, 중국에서 9,602개 품목을 수입했음.

- 지난 5년 사이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품 가운데 한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초과하는 품목 수는 192개에서 278개로 증가하여 연평균 7.7% 증가함.
 - o 지난 5년 사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 가운데 한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초과하는 품목 수는 3,155개에서 3,625개로 증가하여 연평균 2.8% 증가함.
 - o 품목 수 기준으로 절대적 수준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아직은 높지만,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한국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10대 수입품 가운데 한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초과하는 품목 수는 5개에서 2021년에는 6개로 증가하여 품목 수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베트남에 더욱 의존적인 품목들이 증가했음.
 - 품목 수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한국 수입시장 내 품목별 점유율을 비교할 때 2016년에는 한국 수입시장에서 5개 품목 모두가 50% 주변에 위치하였다면, 2021년에는 6개 품목 중 2개 품목은 점유율 80%를 초과했고, 또 다른 2개 품목은 70%를 초과했음(그림 8 참고).
 - o 2016년 베트남에 의존적인 품목은 62류의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2021년에는 85류의 전기기기 관련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해 고부가가치 첨단제품의 수입 증가를 나타내는 [그림 4]와 결을 같이함.
 - 또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동일 10개 품목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6년과 2021년 1개 품목이 점유율 50%를 초과함.
 - o 2016년 휴대전화(HS8517.12-9090)가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50%를 초과했지만, 2021년에는 휴대용 자동차료처리기계(HS8471.30-0000)가 한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초과함.

그림 8. 베트남산 10대 수입품의 한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 변화(2016→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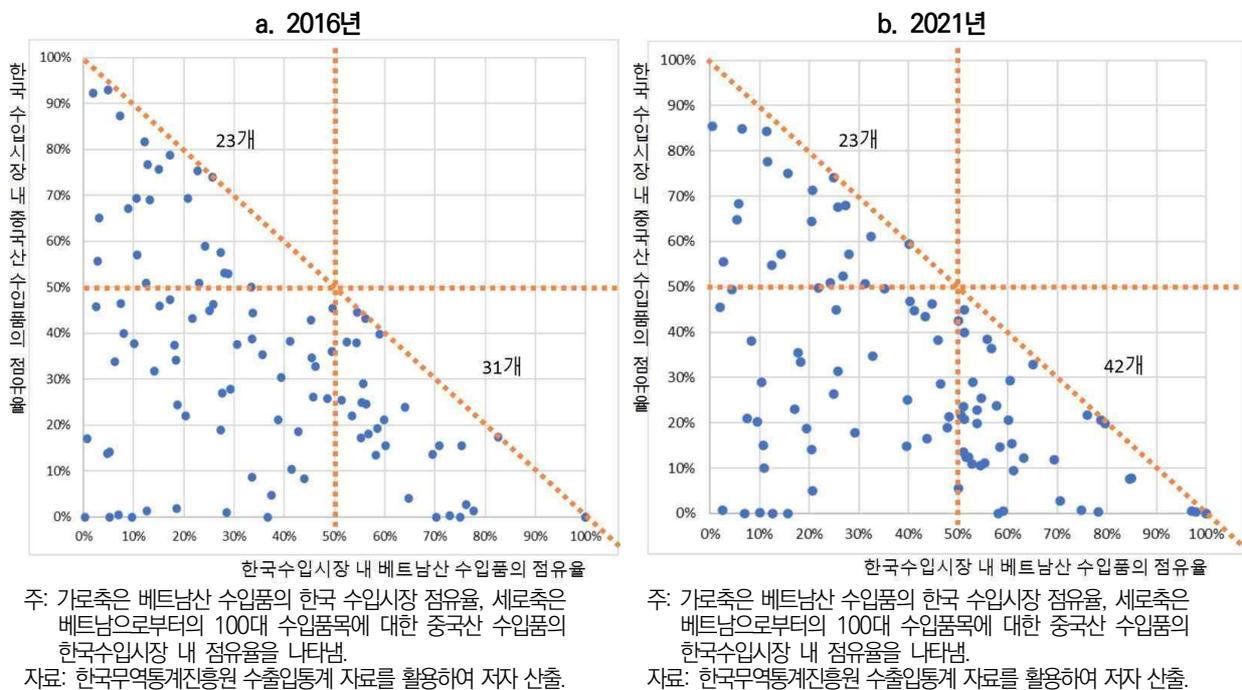


주: 가로축은 베트남산 수입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세로축은 베트남으로부터의 10대 수입품목에 대한 중국산 수입품의 한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산출.

주: 가로축은 베트남산 수입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세로축은 베트남으로부터의 10대 수입품목에 대한 중국산 수입품의 한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산출.

- 한국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100대 수입품 가운데 한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 50%를 초과하는 품목 수는 2016년 31개에서 2021년에는 42개로 증가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베트남에 의존적인 품목 수가 증가했음 (그림 9 참고).
- 2016~21년 사이 10대 수입품 기준으로 베트남에 의존적인 품목 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100대 수입 품목 기준으로 베트남에 의존적인 품목 수는 연평균 6.3%씩 증가함.
- 반면에 동일 100대 품목에 대해 중국산 수입품의 한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 50%를 초과하는 품목 수는 2016년과 2021년 모두 23개로 나타남.
- 이는 국내 수입시장이 베트남산 수입품에 의존적인 구조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9. 베트남산 100대 수입품의 한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 변화(2016~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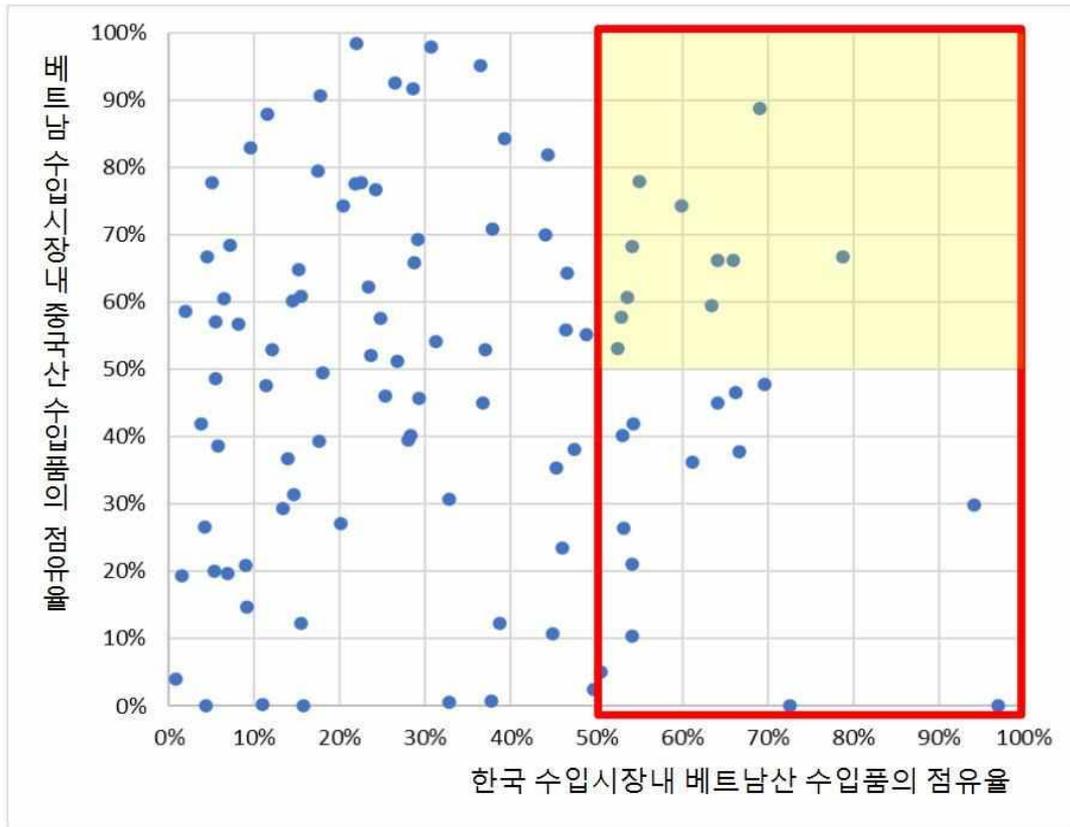
- HS 6단위 기준으로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초과하는 한국산 품목 수는 2016년 193개에서 2020년 146개로 연평균 6.7%씩 감소했지만, 중국산 품목 수는 2016년 1,328개에서 2020년 1,795개로 연평균 7.8%씩 증가함.¹⁾
- 2016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 가운데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초과하는 품목 수는 193개였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 가운데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초과한 품목 수는 1,328개였음.
 - 2016년 베트남은 HS 6단위 기준으로 세계에서 4,414개 품목을 수입하였고, 그중 한국으로부터 3,422개 품목, 중국에서 4,002개 품목을 수입했음.
- 2020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 가운데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초과하는 품목 수는 146개였고,

1) 베트남과 한국의 수출입 자료는 UNComtrade 자료에서 HS 6단위까지만 동일한 품목코드를 사용하므로, 비교가 가능함.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 가운데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초과하는 품목 수는 1,795개였음.

- 2020년 베트남은 HS 6단위 기준으로 세계에서 4,483개 품목을 수입하였고, 그중 한국으로부터 3,349개 품목, 중국으로부터 4,072개 품목을 수입했음.
-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늘면서 현지에서 조달하는 품목이 증가했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품목 수가 감소했을 수도 있고, 중국산이 한국산을 대체했을 수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중국산 수입 품목 수의 빠른 증가세는 베트남과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려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큼.

그림 10. 베트남산 100대 수입품의 한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과 베트남 수입시장 내 중국산 점유율(2020)



주: 가로축은 한국 수입시장 내 베트남 수입품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베트남 수입시장 내 중국산 수입품의 점유율을 나타냄.
자료: UNComtrade 자료를 활용하여 HS 6단위를 기준으로 저자 산출.

■ 한국은 베트남에 의존적인 품목 수가 증가하는 반면, 베트남은 한국보다는 중국에 의존적인 품목 수가 늘고 있으므로 한국과 베트남 간 공급망 연계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2020년 한국의 대베트남 100대 수입품 중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품목 수(HS 6단위 기준)는 25개였는데(그림 10의 빨간 선 박스 내),²⁾ 이 중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초과하는 중국산 품목 수는 11개였음(그림 10의 노란색 박스 내).

2) 베트남과 중국의 수출입 자료는 UN Comtrade 자료에서 HS 6단위까지만 동일한 품목코드를 사용하므로 비교가 가능함.

- [그림 4]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 중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제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림 5]에서처럼 한국이 베트남에 의존적인 품목 수가 증가했다는 점은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시간이 흐르면 서 점차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한국이 베트남에 의존적인 25개 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은 베트남이 중국에 의존적인 품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같이 중국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공급망 위험이 전파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양국이 직면한 최우선 경제협력 과제는 무역불균형보다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다각화 전략을 통해 낮추는 것임.³⁾
- 그런 의미에서 지난 12월 베트남 폭 주석의 한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은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7. 베트남의 RVC 참여율 추이

연도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			GVC 참여율 (a+d)	RVC 참여율 (c+f)	RVC 비중
	합계 (a+b+c)	아세안 역외(b)	아세안 역내(c)	합계 (d=e+f)	아세안 역외(e)	아세안 역내(f)			
2007	30.6	26.6	4.1	8.9	7.3	1.5	39.5	5.6	14.2
2010	36.5	33.0	3.5	9.6	8.4	1.3	46.1	4.8	10.4
2015	31.3	28.9	2.4	10.9	9.8	1.2	42.2	3.6	8.4
2016	38.5	35.5	3.0	9.4	8.7	0.7	47.9	3.8	7.8
2017	36.9	33.4	3.5	9.6	8.8	0.8	46.5	4.2	9.1
2018	39.4	37.1	2.2	11.3	10.3	0.9	50.6	3.2	6.3
2019	41.6	39.0	2.6	7.7	6.6	1.1	49.3	3.7	7.4
2020	41.7	39.5	2.2	6.9	5.9	1.0	48.6	3.2	6.6
2021	46.8	43.5	3.3	5.8	4.9	0.9	52.5	4.2	8.0

자료: 광성일 외 (2021),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협력 방안 연구』, 표 2-6, p. 6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DB-MRIO 자료를 활용하여 업데이트함.

■ 베트남 기업은 2010년대 들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빠르게 참여한 반면, 아세안 역내 기업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표 7 참고).

- 2007년 베트남의 GVC 참여도는 39.5%를 기록했지만 201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50%대를 유지하였지만, 그에 반해 아세안 역내 기업과의 교류 정도를 나타내는 아세안 지역 가치사슬(RVC) 참여율은 2010년대 이후 5%를 넘지 못함.
- 베트남의 소재·부품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베트남 기업은 해외부가가치 활용률이 높은 편인데, 이는 수출을 위해 아세안 역내보다는 역외(중국, 일본, 한국 등)로부터의 부가가치를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임.
- 베트남 기업이 아세안 역내 기업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전략을 통해 지원한다면 베트남의 아세안 역내 무역을 늘리는 동시에 양국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3) 한국과 베트남 간 무역불균형은 2017년을 정점으로 증가하다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다만 2021년 일시적으로 무역불균형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4.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방안

■ 양국은 경제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정치·외교, 사회, 문화,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로운 발전 토대를 형성해왔으나, 양국 관계가 성숙한 만큼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22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할 당시 교역액이 약 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30년이 지난 2021년에는 807억 달러를 돌파하여 수교 당시보다 160배 이상 증가함.
 - 수교 초기에 기업인을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진 인적교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484만 명을 돌파함.
 - 2021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 파트너, 1위 투자국이고,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 상대국(누적 기준)이자 아세안 지역 내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함.

■ 글로벌 환경 변화와 베트남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이슈를 양국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한반도 정세 악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가 부상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은 1992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시점임.
 - 양국간 교역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집약적인 저위기술 품목에서 고부가가치의 중고위 첨단기술 품목으로 바뀜(그림 4 참고).
 -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도 2010년대 중반 이후 저위기술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줄었고, 중고급 기술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은 증가함(그림 6(a) 참고).
 - 공급망 측면에서 최근 5년 사이 한국은 베트남에 의존적인 품목 수가 증가한 반면, 베트남은 한국보다는 중국에 의존적인 품목 수가 늘어나고 있어 한국과 베트남 간 공급망 연계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
- 기존 협력 분야 이외에 국제정치 및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베트남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협력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미중 패권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베트남의 외교전략 변화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따른 베트남 시민사회의 변화와 정치권의 정체성 변화,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의 기능 변화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어야 함.

■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지난 12월 초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므로, 양국 관계의 다가올 미래 30년에 관한 로드맵을 서둘러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국 협력 로드맵을 수립할 때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신흥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기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거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로 역할을 했다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는 ‘교량’ 역할을 대신 수행할 국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교량 건설국(bridge builder)’이 되어야 함.⁴⁾
 - 한국이 베트남 성장의 모범 국가였다면, 미래 30년은 베트남이 다른 개발도상국의 모범 국가가 될 수 있

4) 박성일, 김제국(2022),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 관계 발전 성과 평가』, p. 150, 외교부 수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도록 한국이 지원함으로써 한국은 새로운 '교량 국가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이는 다자질서 체제 속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기존 국제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한 방편임.
- 로드맵을 통해 과거 상처보다는 미래 양국간 협력의 확대 및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함.
- 한국과 베트남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수교 이후 지금까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성이 높으며, 외교·안보적 이해가 일치함.

■ 지난 12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인한, 교역액 2023년 1천억 달러, 2030년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함.

- 한편 지난 12월 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3년 교역액 1천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지향하기로 했지만, 구체적 정책을 제공하지는 않았음.⁵⁾
- 양국은 인구 고령화, 인플레이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교역 확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역내 규범에 근거하여 경제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 또한 한국은 다자질서 체제 속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이므로, WTO, APEC 등 다자경제 협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 다자협력체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가 필요함.
- 한편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및 기술 이전 관련 제도의 투명성 개선에 노력해야만 최근 지체되고 있는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공급망 측면에서 베트남과 한국은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재·부품 산업의 R&D 및 기술 이전을 포함한 양국간 협력이 필요함.

- 한국의 베트남에 의존적인 품목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의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 하락은 한국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베트남의 기업들은 아세안 역외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과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교류하고 있지만, 아세안 역내 기업들과는 활발하게 교류하지 못하고 있음(표 7 참고).
- 베트남을 아세안 역내 '한국 R&D 센터 네트워크의 허브국'으로 육성하여 한국 기자재에 익숙한 인력을 양성하고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에 공급한다면 한국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음.
- 2020년 독일 지멘스는 동남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제조업 전환센터(Advanced Manufacturing Transformation Center)'를 싱가포르에 개설하고, 자국 기자재를 통해 현지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자국 생태계를 현지에 구축하는 효과를 얻음.
- 베트남을 교두보로 아세안 역내에 한국 R&D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기자재에 익숙한 인력을 아세안 전역에 배치할 수 있다면 한국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수월해지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도 촉진될 수 있을 것임. **KIEP**

5)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817>.